

헤드라인  
(요약과 압축)

금융·통신에 유통 결합...커지는 '데이터 동맹'

기사링크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5/0004452067?date=20201119>

[ 신한은행, LG유플러스·CJ올리브와 '공동 프로젝트' 협약  
데이터 공동 수집하고 플랫폼 개발·마케팅 공유 다양한 생활 밀접형 서비스  
마이데이터가 경쟁력 핵심으로 금융·비금융사 '합종연횡' 확산 ]

신한은행이 LG유플러스, CJ올리브네트웍스와 마이데이터 사업 협업을 위한 '3자 동맹'을 맺었다. 통신·금융·유통 분야 데이터를 결합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시대를 앞두고 빅테크(대형 IT 기업)의 공습에 대비하기 위한 금융·비금융 회사 간 '합종연횡'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6800만 명 데이터 단숨에 확보” 판 커지는 ‘마이데이터’ 동맹

은행		협업 기업	내용
신한	LG유플러스 CJ올리브	마이데이터 공동 프로젝트 협약	
		쇼핑 등 생활 맞춤형 서비스 개발	
		데이터 공동 수집·활용	
하나	SK텔레콤	고객이 관리하는 플랫폼 구축	
		통합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우리	KT	통신 데이터 활용 금융서비스 개발	
		금융·ICT 융합 위한 MOU 체결	
		데이터 클라우드 AI 협업 및 공동 연구	

자료:각은행

신한은행은 18일 서울 태평로 신한은행 본점에서 LG유플러스, CJ올리브네트웍스와 '마이데이터 공동 프로젝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진옥동 행장을 비롯해 각사 대표가 모두 참석했다.

세 회사는 고객이 자신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하기로 했다. 자산관리 등 금융 서비스뿐 아니라 통신, 생활, 유통, 엔터테인먼트, 쇼핑 등 다양한 생활 밀접형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공동으로 수집한

본문  
(본문 내용 복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객 행동 공동 연구 △머신러닝(기계학습)과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 △디지털 마케팅 자원 공유 등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각자 보유한 데이터를 융합하면 고객의 생활 패턴을 더욱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비자 취향에 맞는 금융, 통신, 쇼핑 등의 상품을 먼저 개발해 제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CJ 계열사의 통합 멤버십 CJ원(ONE)을 통해 2700만 명의 유통 관련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신한은행(2500만 명) LG유플러스(1600만 명) 회원 수를 더하면 총 6800만 명의 데이터를 단숨에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하나의 앱에서 자산 관리를 받고 모은 자산으로 곧바로 원하는 제품을 사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커피를 좋아하는 소비자에게 커피 할인을 해주는 금융 상품을 소개하거나, 통신사 요금 납부 내역을 바탕으로 신용 등급을 산정해 대출해주는 등 소비자 혜택을 키울 수 있는 ‘청사진’은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

금융-비금융사 협업 이어질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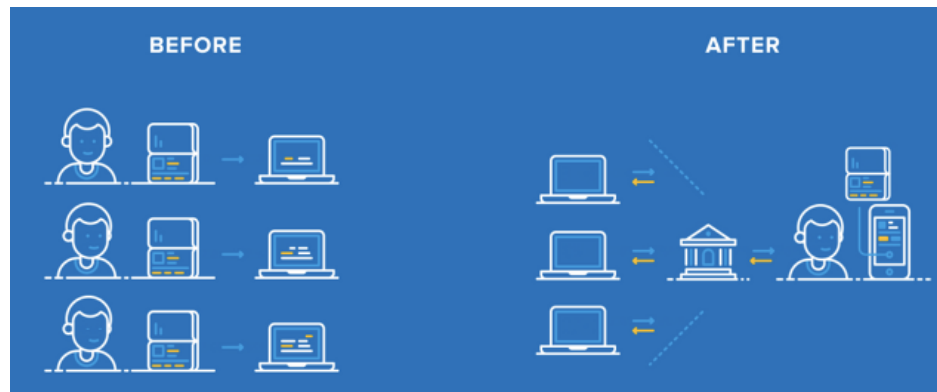
앞으로 금융-비금융 회사 간 협업 바람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와 금융사 간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마이데이터 경쟁력이 생존의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신청 업체에 대한 사전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르면 내년 초 첫 번째 허가 업체가 나올 전망이다.

빅테크 기업들은 쇼핑, 검색 등의 자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지만 금융사 데이터는 금융 관련 정보에 치중돼 있다. 은행 등 금융사들이 잇달아 동맹을 구축하고 있는 이유다.

하나금융그룹은 SK텔레콤과 합작해 설립한 핀테크 업체 핀크를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 업체로 등록했다. 핀크는 앱을 통해 금융거래 및 상품 조회·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자산관리 업체다. SK텔레콤의 휴대폰 이용 정보를 통신점수로 산출한 뒤 이에 따라 대출 금리를 깎아주기도 한다.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8월 KT와 손잡았다. 우리·비씨카드와 KT 간 데이터를 공유하는 한편 합작사 설립도 준비 중이다.

본문의 근거 (객관적인 수치)	CJ올리브네트웍스는 2700만 명의 유통 관련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음 협업 통해 신한은행(2500만 명) LG유플러스(1600만 명) 회원 수를 더하면 총 6800만 명의 데이터를 단숨에 확보 가능함
---------------------	--

추가조사할 내용 또는결과 (기사의 근거를 통해 바뀐 수치는 무엇인가?)	<div>✓ 마이데이터 (MyData)</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자신의 데이터를 주인으로서 활용하는 과정'</li><li>- 본래 개인 데이터는 개인이 아니라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li><li>- 개인 데이터를 기업에서 주로 통제해오면서 기업 간 정보 불균형도 점점 커짐</li></ul>
--	---



### ✓ 마이데이터 사업

- 개인의 동의하에 타 기업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받아 활용
- 2020년 8월 5일부터 개정된 데이터 3법이 시행을 통해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 가능
- 개인정보를 활용해 금융정보 통합조회,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신용정보관리 서비스 등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음
- EX ) 네이버 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뱅크샐러드



### ✓ 마이데이터 사업의 장점

- (1) 개인
  - 통합 데이터를 이용해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쉐어파일러(Thin filer)들도 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음
    - 쉐어 파일러: 금융 이력이 거의 없는 사람, 주로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이 이에 해당
- (2) 기업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실행 가능

- 신규기업들은 데이터를 확보하기 쉬워 데이터 비즈니스의 진입 장벽이 낮아짐
- 해외에서 사업을 하기에 용이함

#### 업권별 주요 마이데이터 서비스 예시

업권	정보 활용	주요 서비스
은행	계좌거래 내역, 대출 잔액, 금리·이자 등의 다양한 금융자산 현황 등을 분석	저축, 재테크 방안원 안내 등을 통한 자산형성 지원
카드	카드사용 일시, 결제 내역, 카드대출 이용 등의 소비패턴 분석	다양한 카드사용 혜택 제공 및 합리적인 소비습관 개선 지원
금투	투자종목, 투자금액, 자산규모 등의 투자정보를 통해 투자패턴 분석	세제 혜택, 투자습관 개선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 제공
보험	보험료 납입내역, 보험기간, 보장내역 등의 보험정보를 통해 노후예측 및 건강 분석	연금관리를 통한 노후설계와 저비용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핀테크	은행, 카드, 증권, 보험 등 여러 금융 업권의 금융상품 및 정보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및 정보 주체의 정보권리 행사 대행
IT	금융과 통신, 유통 등의 데이터와 융·복합	토신정보기반 금융상품, 유통 정보기반 금융상품 등 고부가 가치 혁신서비스 제공

자료=금융위원회

#### ✓ 마이데이터 사업의 단점

- (1) 정보유출과 악용
  - 해결점: 금융위원회에서 제한된 회사들에게 허가를 주고, 보안 관련 법을 강화함
- (2) 기업 간 비협조
  - 자기의 데이터는 적게 주고, 다른 회사들의 데이터는 많이 받으려 함

#### 적용할점

- ✓ 현재 00회사에서 마이데이터를 어떤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 ✓ 타 회사와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00회사가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 연관기사 링크

쇼핑 정보까지 제공? 마이데이터 사업이 뭐길래!?

<https://slownews.kr/77701>

은행도 IT기업도 뛰어드는 '마이데이터 사업' 돈 나와라 뚝딱...금융데이터는 '요술램프'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0/08/791344/>